

경인일보

2020년 11월 13일 (금)
01면 종합

유엔사 “평화부지사 도라산 집무실 허용 검토”

〈전망대〉

명확한 결정 안내려 결과 ‘관심’

이재강 부지사는 매일 1인 시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하겠다는 경기도 계획(11월 1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유엔사령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무실 설치 허용 여부를 명확히 결정한 게 아닌 만큼 유엔사 판단에 귀추가 주목

되는 가운데,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는 1인 시위를 벌이며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유엔사 측에 경기도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엔사는 “(집무실 설치 관련) 요청을 받은 건 맞다”며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도는 비무장지대인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다 유엔사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찰 군 부대에서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

다. 책상, 의자 등을 놓는 일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지난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땅에 책상, 의자를 놓는 일조차 유엔사 허락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매우 참담한 일이다.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니다. 비군사적 행위까지 유엔사 승인을 받으려는 우리 군의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진각에 집무실을 만든 후 매일 통일대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이 부지사는 “유엔사는 개성공단이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가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집무실 설치에 대해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반발하고 있는 점과 관련, 유엔사 측은 “(경기도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